김장철 앞두고 광주 배추·무 가격 안정세

배추 5천원대·무 3천원 수준 전년 대비 각 27%·18% 하락 일부양념채소소비둔화로상승

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 재료의 공급 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 풍작과 정부의 수급 관리 가 맞물리며 소비자들의 김장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.

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(aT)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'광주·전남 농수산물 가격정 보지 2520호'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 서구 양동 시장에서 판매되는 배추(1포기)는 5천350원, 무 (1개)는 3천원으로 조사됐다.

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%, 18% 낮 은 수준이다.

배추와 무 외에도 여러 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.

당근(1kg·무세척)은 3천660원으로 지난해보 다 45%나 하락했고 청양고추(100g)는 730원으로 30.9% 떨어졌다. 청상추(100g)는 1천원으로 14% 저렴해졌으며 양파(1kg)는 2천330원으로 4.1%, 애호박(1개)은 1천830원으로 18.7% 각각 하락했

이 같은 안정세는 주요 산지의 생산량이 예년 보다 늘어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 덕분으로 풀이된다.

반면 일부 양념채소는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

생강(1kg)은 1만1천3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.1 % 비싸졌으며 깐마늘(대서·1kg)은 1만300원으

로 18.9% 올랐다. 건고추(화건·600g) 역시 1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.9% 상승했다.

이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전문 취급 상인들이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서 공 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.

aT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"배추와 무의 다. 산지 출하량이 충분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안정 적으로 확보돼 있어 당분간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다"며 "다만 일부 양념채소는 소비 패턴 변화 와 재고 감소가 맞물려 소폭의 가격 변동이 있을 수있다"고밝혔다.

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오는 11월 본격 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'김장채소 수급안정 대 책'을 발표한다. 주요 산지의 작황 및 출하 상황 을 면밀히 점검하고, 가격 급등 시 비축물량을 신속히 방출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

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별 점검을 강화하 고,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'착한 가격 김장재료 기획전'도 추진할 계획이다.

/안태호기자



할인·소비축제'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' 개막 대규모 할인·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8일 동구 5·18민주광장과 ACC 하늘마당일대에서 개 막해 시민들이 축제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. 광주 개막을 시작으로 전국 42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 리는 이번 행사는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살린 행사가 함께하는 전 국민적 축제다. /김애리 기자·조영권 인턴기자

GICON,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성료

개발자 · 기업 지식 · 경험 공유 강연·게임 부스 '호평'

(재)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(GICON)은 28 일 "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'2025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 스(GGDC)'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"고 밝혔

벌 마케팅 전략, 인디게임 개발 등 다양한 주제 가 다뤄졌다. 행사는 23일 미국의 Kimberly Swi ft (Swiftli Games and Consulting 대표, 전 Micr

osoft Xbox)의 기조연설로 시작됐으며 AI 기 술이 게임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산업 전망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국내외 연사들은 최신 게임 개발 기술과 AI 활용 사례,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소개했고, NX3 GAMES, NC AI, 컴투스, 카카오게임즈 등 국 내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개발 노하우를 전했다.

한 참가자는 "평소 접하기 어려운 개발자들 올해 GGDC에서는 'Game On' AI × Gwangi 의 경험담을 통해 게임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u'를 주제로 AI 기반 그래픽·사운드 제작, 글로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"고 소감 을 전했다.

연사 강연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는 인디게 임 체험 부스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되며

활기를 더했다. 각 팀은 개발 중인 게임을 현장 에서 시연하며 방문객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 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.

세션 종료 후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개발 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실 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.

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"GGD C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흐름 속에서 개발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"며 "앞으로도 국내외 개발자와 기업 간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"고 말했다.

+

/안태호기자

중기중앙회·경영기술지도사회, 중소기업 발전 도모

경영기술컨설팅 등 상호 협력

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8일 "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광주전남지회와 경영 기술컨설팅을 통해 우리지역 협동조합과 중소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"고 밝혔다.

이날 협약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 남회장,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 합 이사장, 유동주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이 사장, 김형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 장, 조경문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, 김상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광주전남지회 장, 김경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.

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중소기업의 경영 혁신, 기술혁신, 디지털전환 등을 위한 공동 사 업의 발굴 및 추진 ▲회원전문가와 중소기업 간 컨설팅 매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▲중소기업 대상 교육·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▲중소기업 경영진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진 단·자문·성과관리 등 지속 컨설팅 프로그램공 동 운영 ▲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, 프로 젝트, 사업화 지원사업의 공동 홍보 및 네트워 킹 협력 등이다. 이와함께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 /안태호기자

LH 광주전남본부, '사랑의 빵 나눔' 봉사

백운3단지 공유냉장고에 기부

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8일 "전날 지역상생-더불어(double-up) 사회 공헌 활동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고 LH 광주백운3단지 공 유냉장고에 기부했다"고 밝혔다.

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LH 봉사단원은 제 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금빵, 카스테라, 소 보루빵을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.

여러 직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빵은 독거노

인 등 소외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LH 광 주백운3단지 공유냉장고에 전달했다.

LH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만들기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만든 빵을 임대주택 내 공유냉장고에 기부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 로 실천하고 있다.

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승 LH봉사단원은 "추운 날씨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"며 "미숙한 실력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 다"고소감을전했다. /임채만기자





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

Ⅰ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,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작업장소 그늘 마련, 선풍기·이동식 에어컨 설치 무더위 시간(14시~17시) 옥외작업 최소화

(♦)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



